

#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무명(이름 하나 못지은...)소식지 창간준비호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학벌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질망과 차별을 되풀이하는

## 학벌사회



### 학벌철폐입시폐지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 9~10월, 요즘 이렇게 살았어요.

### 일제고사 Say-no 활동 전개

10월 8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14, 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전국적으로 일제이 시험을 치르고 등수를 매기기 위한 학업 성취도평가에 시행되었는데요. 무한경쟁을 통해 학교를 서열화 한다고 판단,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이 중심이 되어 일제고사Say-no 투쟁에 나섰습니다.



캠페인 및 서명운동

10월 4일~5일 / 총장로 삼복서점 앞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육주체 기자회견

10월 6일 /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



미친교육반대 교육주체 결의대회

10월 9일 /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

일제고사 Say-No 청소년 문화제

10월 11일 / 금남로 차없는 거리



일제고사 거부 학생, 학부모 기자회견

10월 14일 /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진행

10월 14일~15일 / 임곡, 전남 곡성일대

### 교육운동의이해 세미나 진행

'학벌사회(김상봉 씨 저서)' 세미나에 마친데 이어, '교육운동의이해(진보교육연구소 발행)'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손서로 '자본주의 경제학 비판'이란 주제로 한차례 진행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세미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

### 조전역 의연 광주방문 항의집회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이른 아침,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자율화를 기반으로 무한경쟁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역의원의 광주방문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전역의원과는 눈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OTL... -\_-;

### 안티연고전 담장부수기 ing



매년 9월이 되면 잠실벌을 가득 메운 그들만의 리그 연고전(고연전)을 치룹니다. 그리고 이 열광적인 축제를 반대하는 안티연고전도 동시에 열립니다. 학벌주의, 권위주의, 대학 축제문화를 이야기하는 안티연고전은 6회째 달려왔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료집을 제작했으니 기다서도... ^^  
To be continue.

### 아남중학교 인권부스



10월 22일 아남중학교 축제에서 인권마당을 열었어요. 입시교육의 소재가 되고 있는 문제집, 시험지, 참고서를 찢어 모자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입시에 찢들린 학생의 모습입니다. -\_-;

### 학벌타파 영상제작 ing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과 함께 학벌을 주제로 한 인권영상을 제작중입니다. 9월 한달동안은 학원 밀집지역, 교육운동단체를 돌아다니며 학생, 교사, 청소년단체 활동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학원에 갇혀 사는 학생들이 안타깝더라고요. ^^ 영상은 편집 후, 11월경 여러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 학생인권조례운동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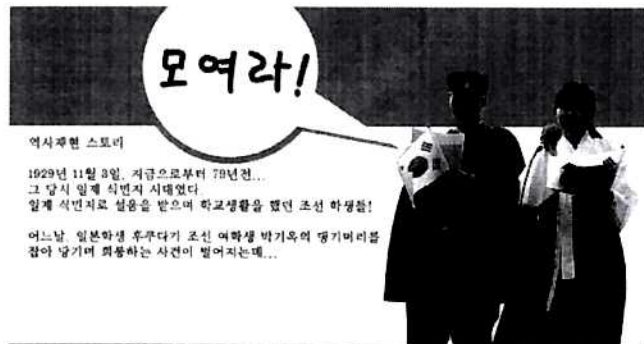
전교조 광주지부 제안으로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소년, 교육운동단체 활동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2009년을 목표로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 11월, 앞으로 이렇게 살거예요.

## 광주학생항일운동 거리퍼레이드

11월 3일은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일입니다. 일제 수탈에 맞서 한국 학생들이 곁기 하여 항일 투쟁했던 날이었다죠. 이 날을 기념하고 현재 학생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청소년 거리퍼레이드 및 문화제를 갖습니다.

일시: 11월 2일(일) 12시~15시 / 금남로, 충장로 일대  
 ※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교육분야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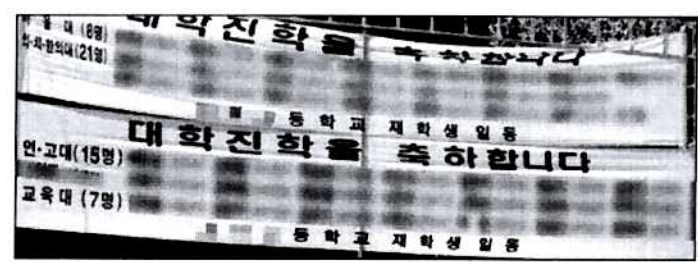
역사재현 스토리

1929년 11월 8일, 지금으로부터 79년전...  
 그 당시 일제 식민지 시대였다.  
 일제 식민지로 실운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했던 조선 학생들!  
 어느날 일본학생 후쿠다기 조선 여학생 박기옥의 핏기머리를 잡아 당기며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11.3 학생의 날 역사재현 퍼레이드  
 일시 2008.11.2(일) 12시~5시  
 장소 금남로, 충장로 일대

## 학벌주의 특정대학 합격현수막 모니터링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라는 말이 틀리진 않은 거 같아요. 최근 대학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 일선학교 교문 앞에는 특정대 합격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해당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입시경쟁에서 승리하여 특정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이라는 인식을 생산해내고 있지요.

그러나 입시경쟁에서 승리하여 상위권에 들지 못한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며, 또 장기적, 포괄적으로는 청소년인권 침해를 생산해내는 입시경쟁교육체제에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적극적으로 순응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기에 '학벌주의 현수막'은 즉각 철거 반대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이 활동은 여러분들의 작은 걸음이 절실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집 근처 고등학교 한군데라도 알아봐주세요. 아이들~~~~~

모니터링 참가신청 : antihakbul@gmail.com 이름,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2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꽃들에게 희망을”



“무의미한 경쟁은 이제 그만, 나비는 바로 나아”  
 “경쟁에 지친 우리, 꽃들에게 희망을”

서로를 밟고 짓밟이며 어디가를 향해 끊임없이 오르는 애벌레들.  
 자신이 나비가 될 수 있음을 모른 채 나비를 보기 위해 오르는 무의미한 행렬 속에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은 애벌레가 스스로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듯, 경쟁을 위한 교육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교육, 무의미한 경쟁 대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제2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을 준비합니다.

<양후 계획>

- 11월 13일 수능Out!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기자회견
- 11월 13일~29일 직접행동 주간 (플레이쉬업, 퍼포먼스, 캠페인)
- 11월 29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지역문화제

자유기고

“일제고사 Say-No~ 체험학습 Say-Yes”

회원 박고영준

10월 8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14, 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고 등수를 매기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었다. 달리 말해 ‘일제고사’라고 하는데, 자립영사립고, 학교정보공시제나 국제중 같은 초강력 경쟁 교육정책 중 하나로써,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바탕이 될 교육정책이다.

올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여파로 인해 이명박 정부서 실시하는 정책은 하나같이 ‘NO!’라고 외치고 있는 국내정세 속에, 이번 일제고사도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제고사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여러 촛불집회에서도 보여줬듯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주지 않았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10월 14~15일. 그 날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 학부모가 모여 기자회견을 가지며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청소년이 시험과 등수에 주눅들고 말라가고 있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숨막히는 교실이 아닌 자연 속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나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 왜냐? 일제고사는 오로지 '경쟁'만을 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2002년 나는 수능(수학능력시험=다른 말로 '순응')를 거부했다. 수능도 똑같은 문제를 풀어 등급, 순위가 나오는 경쟁교육, 일제고사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사람들을 불신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없애도록

만든다. 특히 '인간적'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비인간적 인간'을 양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응'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껏 청소년은 경쟁을 아끼하는 교육정책들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것도모자라 이번 일제고사로 인해 더욱 강력한 경쟁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일부 입시학원에 의해 학교 시험점수를 파악되었고, 그렇게 정해진 점수에 따라 학생, 학교, 지역 간에 줄 세우기가 매겨져버리고 말았다.

서열은 학교 간 평준화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경쟁은 더욱 강화된다. 강화된 경쟁은 더욱 서열을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벌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앞으로 2010년도에 시행될 학교정보공시제는 일제고사 점수로 학생, 지역, 학교 간 성적 격차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지역 간, 학교간 서열체제를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그 3개 등급의 학생의 수를 팝업창을 띄우는 등으로 '공시' 하도록 한 것은 '서열체제'를 만들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검색사이트에 일제고사를 검색하면 일제고사 대비 학원들이 수없이 뜬다. 사교육이 만들어낸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는 일제고사가 사교육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 전문 학원뿐만 아니라, 기존 학원에 일제고사의 준비를 위한 특별반은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일제고사를 잘 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성적을 통해 만들어진 학교 간 서열을 통해, 그 서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따라서 사교육시장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일제고사는 사교육문제에 대하여 그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고사가 해결책이나, 해결책을 위한 원인분석으로 활용된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제고사는 사교육으로 생긴 교육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켜, 더욱더 심한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론 상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지정으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성적 좋은 인간, 학벌 좋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존재라고 주입시키는 교육,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에 대한 비판이 없는 교육 등, 그저 국가의 상위계층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 위한 도구였다. 또한 평등한 교육을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불평등한 교육을 함으로서 계층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계급을 재생산 시켜 왔을 뿐이다. 그리고 획일화되고 권위적인 교육으로 한 인간의 삶을 성적이라는 잣대로 결정지어버리고, 항상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을 부른다.'는 거짓말로 청소년들에게 좀비 같은 삶을 강요해왔다.



나는 일제고사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안입시경쟁, 즉 청소년들을 인간이 아닌 좀비로, 입시경쟁지옥의 전사들로, 정답 찍는 기계로 만드는 모든 제도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일제고사 거부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일제고사 거부를 시작으로,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을 아프고, 병들고, 미치게 만들어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차장만 교육연실들에 끝까지 저항하여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변화해야 할 것은 미친교육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이 아닌, 바로 글을 읽는 여러분이다.

## 일제고사 체험학습 사진



희망저서 소대만들기



노동마을에서 홍시따기



체험학습 단체사진



황포강에서 조개캐기



고봉선생의 교육철학 이야기



곡성평화학교의 교육철학 이야기



소리치 노래불러~



노동체험활동  
농촌체험활동

만남 사람

# “시험지보다 체험활동이 나아요.”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청소년 김만결



10월 14일 오전 10시,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보고 있을 시간 그는 시교육청 앞에 있었다. 시험을 거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체험행사를 떠나기 위해서였다. 시험 거부가 처음부터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고, 생각을 해보니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결정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김만결 군이다. 쉬운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 그에게도 자기 안의 생각이란 게 있었다.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다. 인문계나 전문계고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고, 그는 원예고를 영도에 두고 있다. 시험 대신 선택한 체험활동이 삶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했다.

“체험활동 계획을 보니 황룡강 탐사를 하며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평화학교도 방문하고, 농촌체험 활동도 계획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며 시험을 보는 것과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과 연관돼 있는 체험활동 중 어떤 게 더 의미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답은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의 집은 광주의 외곽 지역이다. 젊은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일로 삶을 잇는다. 보고 자란 것이 농사였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촌의 환경에 더 가까운 생활이었다. 무엇보다 시험이 보기 싫었다. 다 같이 시험을 보고 학생을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학교에 체험학습 계획서도 제출했고, 즐겁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험지보다는 강을 따라 걷고 농촌 체험활동을 하는 게 더 나오니까요.”

우리의 입장

# 입시경쟁으로 더 이상 청소년을 죽이지 마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10월 28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성적을 비관하며 너무 일찍 목숨을 끊었다. 지금도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고통 받고 있지만 이제는 언론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청소년의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저 청소년 개인의 낙약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100여명의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택하는 현실에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자살은 단지 개인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죽어간 청소년들의 수는 단지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공부와 입시경쟁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들의 암울한 삶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통계적으로 초·중고 10명 중 3명은 최근 3년동안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며(2007년 학생건강실태조사) 그들 중 일부는 실제 자살을 결심하거나 기도한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거나 일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땅의 미래이며 주인인 청소년’이라 일컫는 교육당국은 왜 청소년을 이토록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가? 왜 자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가? 그것은 한국의 교육이 그 근본부터 왜곡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오로지 대학만을 위한 교육, 입시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안장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부터 과도한 입시경쟁에 후발려 십대 후반에 극심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실력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는 지워지지 않은 채 평생을 열등감과 무기력, 체념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청소년들의 삶이다.

그럼에도 모두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가 따르는 자리들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몇몇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여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패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모든 대학은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어있다. 좀 더 상위의 패거리 집단에 들어가야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입시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정 대학 출신의 권력 독점과 대학서열이 깨지지 않는 한, 사람 죽이는 입시경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처절한 경쟁 속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야 하는 걸까? 소위 일류대 출신의 관료,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다. 속임수 장치로 젊은 세대를 좌절로 몰아넣는 입시와 그 입시를 존재케 하는 대학서열, 그리고 그 근본인 학벌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벌 차별을 강력히 금지하는 사회적 조치와 함께 전면적인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내 짝공을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이제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을 해왔던 당장 중단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국민, 청소년들 앞에 고개 숙어 사과해야 한다.



2008년 10월 31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청소년칼럼

## 체벌은 체벌이다.

<편집이주> 청소년칼럼은 한국사회와 학교(밖) 연장 바로 그곳에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가끔 없이 그대로 담는 기획이다. 지식인이나 활동가 등은 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얘기를 남기지만 학교연장(밖)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고스란히 삶으로 받아내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청소년칼럼은 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한다.

회현 연희

최근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이 체벌을 당한 사진이 있는 기사를 봤다. 시퍼렇게 멍이든 게 30대를 맞았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일상이다. 숙제를 안 해서, 지각해서, 떠들어서, 머리가길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한두 대 맞는 것도 체벌이다. 그런데 왜 그런 건 이런 식으로 논란이 없고, 이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만큼까지 논란이 되는 걸까? 초등학생이라서? 그 이유도 있기가 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체벌의 '강도'가 세서이다. 그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멍이'때려서 비난하는 것이지 '체벌'이라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 아이의 일을 올린 분(이모)조차도 '체벌'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한 대든 스무 대든 체벌은 체벌이고 그 행위 자체가 문제다. 한 대 때린 것은 교육(소위 사랑의 매라고 하는)이고 20대 때리면 체벌인가? 저 학교에서 아이가 한 대만 맞고 집에 왔다면 전혀 이렇게 논쟁이 일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이모 분이 한 대를 맞은 것을 올렸다면 "내 학창시절에는 더 맞았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거나 "체벌은 필요한 것이다." 등 외려 잡소리를 나와 교사가 아닌 학생 폭을 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언제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의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폭력)이 존재하고, 강도가 악한 체벌은 체벌이라고 보단 교육의 일부분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체벌의 강도를 따지는 것 보다는 체벌이라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랑의 매라는 말이 없는, '사랑의 매=교육' 이 아닌 '사랑의 매=폭력' 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재정보고

## 살림살이 남아지셨나요?

### 9월 재정결산

항 목	입 금	지 출
이월금	-20220	
인쇄		20000
후원회비	20000	
결산이자	9	
잔액		-20211

### 10월 재정결산

항 목	입 금	지 출
이월금	-20211	
후원회비	28000	
일제고사 등록 사여비	후원금	100000
	본담금	10000
	책임학습참가비	50000
	책임학습지출	14220
고통비		10000
잔액		15609

### 후원안내

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준) 용돈관리는 회원들이 직접 내는 돈으로 채우고자 해요. 보통 집회 및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 전단지, 신문, 버튼, 활동비 지원, 우편료 등등에 돈이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활동에 하기엔 용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준)은 정기적인 후원을 받고 있어요.

농협 613-02-382605 (예금주: 박영준)  
광주은행 088-121-729051 (예금주: 박영준)

은행방문,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신청하면 매월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

후원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연희, 김지혜, 김중식, 문수영, 박상아, 박경희, 서정, 이종화, 위애림, 유윤종, 임창근, 정영인,  
광주용사단

## 학벌철폐입시폐지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501-1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5-4 흥사단회관2층

전화 : 010-9649-1318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홈페이지 : <http://club.cyworld.com/nohakbul>